

환절기 가축 사양관리 요령



한우

- 사료를 충분히 주고 송아지 육성·번식 및 비육관리 실시
- 급수기를 자주 청소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급여
- 비육우는 사료를 충분히 주고 번식우는 발정관찰 및 적기 수정
- 경기적인 소독으로 해충 퇴치 및 호흡기 질병, 설사병 등 예방
- 사료통을 깨끗이 청소하여 소화기 질병 예방
- 분만실은 마른 깔짚을 깔아주어 습도 및 환기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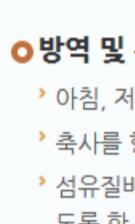
젖소

-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미량 광물질을 보충 급여
- 적기 발정 발견과 수정실시
- 착유실에서는 소에게 안락감을 주고 안정된 착유습관 유지
- 최소 주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 신생송아지는 적기 예방접종으로 설사병 예방
- 위생적인 착유관리 요령 준수 및 유방염 예방과 치료



돼지

- 일교차가 크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실시하여 호흡기 질병예방
- 사료라인, 사료통, 급수기 등을 자주 청소하여 유해물질 제거
- 모돈의 건강상태 확인과 적기 인공수정 실시
-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예방접종과 소독실시



가금

-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냉기류 유입 방지
-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온도 하강 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 계절에 맞게 영양소 조절과 계사 내 습도 관리 철저
- 계사주변 차단방역, 계사 내 소독, 예방접종, 청소 실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면역능력과 체력이 낮은 어린소, 돼지, 닭 등의 가축들은 환경(온도, 풍속, 습도 등)의 변화에 의한 대사불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질병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축사 보온, 환기 등)

1 한우

● 사양관리

-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육성, 번식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함
- 온도가 올라가는 한낮에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급수기를 자주 깨끗이 청소를 해 주어야 함
- 비타민과 광물질 등 첨가제를 축사 내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
- 비육 말기에 있는 비육우는 출하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함
- 번식우는 아침, 저녁으로 발정관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수정시켜 번식률을 향상에 힘써야 함

● 방역 및 위생관리

-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므로 호흡기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파리, 모기 등 외부해충을 퇴치하도록 함
- 섬유질배합사료 등 수분이 많은 사료를 급여할 경우, 사료통내 변질된 사료는 자주 치워 소화기질병 발생 및 사료섭취량 감소를 방지하도록 함
- 분만실의 습도 및 환기에 주의하고, 마른 깔짚을 충분히 깔아 주어 갓 태어난 송아지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신생송아지는 충분한 초유공급과 일교차 등에 대비한 방풍·보온관리로 호흡기 및 설사병을 예방하도록 함

2 젖소

● 사양관리

-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함
- 산유량이 많은 고능력우,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번식능력 극대화를 위해 미량 광물질(아연 등)을 보충 급여
- 분만 후 빠른 자궁회복과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 특히 에너지가 부족 되지 않도록 하고, 적기 발정 발견과 수정으로 수태율 향상에 노력
- 착유실에서는 소에게 안락감을 주고, 착유자의 안정된 착유습관을 위한 조치를 해 줌(예: 클래식 음악 제공 등)
- 고품질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체관리가 중요하므로 저능력우나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 도태방안 검토

● 방역 및 위생관리

-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젖소를 개체별로 진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후 치료해야 함
- 축사 소독은 질병 상황과 축사내외 온·습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음
- 신생송아지에 대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 설사병 발생을 막기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함
- 유방염 관리를 위해 위생적인 착유관리 요령을 준수하고 및 종창된 유방은 소염제나 맛사지 등으로 유방을 풀어주며, 유방염 발생 시는 빠른 시간 내 감수성 높은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

3 돼지

● 사양관리

- 혹서기 집중 사용으로 고장 또는 노후화된 환기팬을 수리하고, 개방돈사는 원치커튼을 보수하여 갑작스런 찬공기의 유입으로 큰일교차에 의한 호흡기 질병의 발생에 대비
- 돈사 내 가스발생량과 외기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의 회전속도를 조정
- 사료빈 단열재 제거 및 사료라인과 사료통, 급수기 등을 청소하여 곰팡이 등 유해물질을 제거
-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돈사 내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전해질 및 미네랄 제재를 음수 내 혼용하여 급여
- 모돈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발정 강도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
-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주며 사료는 신체충실지수(BCS)에 따라 가감해서 급여

● 방역 및 위생관리

- 일교차가 5°C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자돈의 온도관리 및 밀사를 금지하며, 돈군의 전출입(All-in, All-out)을 계획적으로 실시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돼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로써 직접 찬바람이 피부에 닿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돈사관리에 주의

온도변화에 의한 호흡기질병 증가우려로 흥망폐렴, 전염성위장염, 유행성설사병 및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등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일교차에 의한 모든 및 자돈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충분한 초유의 공급과 무유증 예방관리 및 전해질공급을 실시

혹서기를 지난 허약 돼지는 도태 혹은 치료로 건강한 축군을 유지

돈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파리 등 외부 해충퇴치

4 가금

● 사양관리

- 외부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계사 내 환기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해가스 발생과 냉기류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량을 조절해 주어야 함
- 계사 내 환기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풍속은 점차 낮추어 주고 크로스환기나 지붕배기식 등의 환기형태로 바꾸어 줌
-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함
-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외부기온에 맞게 조절하여 급여하도록 함
- 계사 내 습도관리를 위해 급수기의 위치나 급수량 및 급수기의 누수상태를 점검

● 방역 및 위생관리

- 철저한 계사주변의 차단방역과 음수 및 주위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함

콕시듐증과 같은 설사병 예방을 위해 계사바닥 청소 및 텁텁공급을 하여 계사 내 습도 증가요인을 제거

호흡기성 질병 발생에 주의하며 뉴캣슬병, 전염성기관지염 등이 발생한 신란계 농가는 추가로 백신접종을 실시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으로 발생이 높아지는 기금티푸스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비타민C 등 면역증강제 및 항스트레스제를 공급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해 분동 등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하고,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을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 (축사용, 농장용, 외출용) 하여 교환 사용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농장 소독요령]

축사내부 : 지붕 → 벽 → 바닥 순을 소독

정문 및 축사입구 소독 조 : 차바퀴,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함

차량소독 : 차량 외부에 묻은 흙등 제거 후 소독, 차량 밭판 소독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가축운반차량(어리장자)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가급적 타 농장방문이나 모임 등은 자제

플라스틱 난좌(상자) 대신에 1회용 종이난좌(상자) 활용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농장주위에 울타리(방역띠) 설치 등을 통한 일반인, 차량 등 농장 출입 제한